

신체 놀림에 대한 지각, 신체 비교, 신체에 대한 감시, 신체에 대한 왜곡이 성형 의도에 미치는 영향

손 은 정[†]

백석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신체 놀림에 대한 지각, 신체비교, 신체에 대한 감시, 신체에 대한 왜곡이 성형 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여대생 217명을 대상으로 각 변인들에 대한 척도에 응답하게 한 후 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경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7개의 경로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네 변인 모두 성형 의도에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성형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해 보다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고 있다.

주요어 : 성형 의도, 신체 놀림에 대한 지각, 신체 비교, 사회적 비교, 신체에 대한 감시, 신체에 대한 왜곡

[†] 교신저자 : 손은정, 백석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울시 서초구 방배 3동 981-7
E-mail : wdcshon@hotmail.com

최근 성형 수술에 대한 관심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성형외과를 개원한 전문의 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1990년 108명에서 1995년 214명으로 198% 증가했고, 5년 뒤인 2000년에는 411명으로 192% 증가율을 보였다(임인숙, 2001). 또한, 여성 잡지에 실린 성형에 대한 광고도 1990년대 이전에는 호당 1-2개에 불과했던데 반해, 2001년에는 호당 105개가 실렸다(최옥선, 2004). 성형외과 개원 비율과 성형 광고가 급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형수술 경험과 성형수술 의도 역시 증가하고 있는데, 성인 여성의 70%가 직장생활이나 이성 교제에서 외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지어 25~29세의 여성들은 62%나 성형수술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엄현신, 2007). 또한, 성형중독과 이로 인한 극심한 부작용 사례 중 하나인 ‘선풍기 아줌마’에 대한 보도는 성형 수술행동이 이제 과도하고 극단적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신용환, 박진홍, 김태현, 2004).

이와 같이 성형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성형에 대한 극단적인 병리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요인들이 성형에 대해 과도한 관심을 일으키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다. 우리나라 성형에 대한 연구는 주로 TV나 잡지와 같은 미디어의 영향에 대한 연구(윤종희, 성수광, 진기남, 2006; 최윤정, 2005), 자아존중감이나 신체존중감과 성형 수술 태도에 관한 연구들(최백화, 2002; 지경환, 이상익, 2001; 차영란, 김기범, 2006), 또는 성형 동기나 성형 수술 이후 심리적 변화에 대해 면접 방식을 통해 살펴본 연구들(유창조, 정혜은, 2002; 이현옥, 구양숙, 2006)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성형 행동의 심리적인 기제와 관련된 변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검증이 부족한 상황이다. 다만, 몇 가지 심리적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이 있었는데, 즉, 외모지향성과 놀림당한 경험이 성형의향이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 간에 차이가 있다는 연구가 있으며(임인숙, 2004), 성형과 관련된 변인들에 대해 통합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Sarwer, Wadden, Pertschuk, 그리고 Whitaker(1998)의 모델 중 사회문화적 영향과 관련된 공격 자기의식,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 그리고 신체에 대한 태도가 성형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가 있었다(손은정, 2007a). 그러나 이 연구들에서도 성형과 관련된 변인들을 보다 종합적으로 살펴보지 못했다. 즉, 임인숙(2004)의 연구에서는 발달적 영향(신체에 대한 놀림 받은 경험)과 성형 의도 간의 관계를 다루었고, 손은정(2007a)의 연구에서는 사회문화적 영향(공격 자기의식,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과 성형 의도에 대해 살펴보았지만, 신체에 대한 발달적 영향과 사회문화적 영향을 함께 살펴본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한편, Sarwer 등(1998)의 모델에서는,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문화적 영향뿐만 아니라 발달적 영향, 신체에 대한 지향성, 그리고 신체에 대한 만족 등 여러 가지 변인들이 성형 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성형 수술 의도에 대해서 심리적 특성을 살펴본 선행 연구들은 발달적 영향(임인숙, 2004)이나 사회문화적 영향(손은정, 2007a) 중 하나만을 다루었기 때문에, 성형 의도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밝혀진 이 두 변인이 신체상과 함께 서로 어떤 과정을 통해 성형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림 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임인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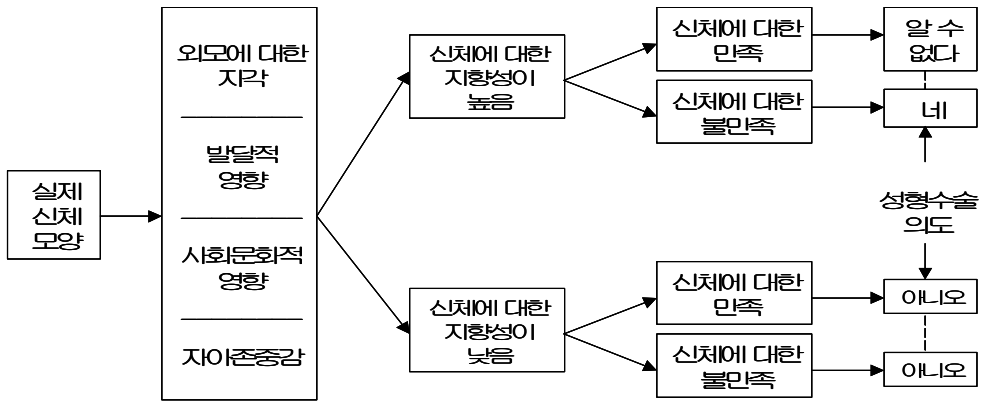


그림 1. 신체상과 성형 수술 의도 간의 관계에 대한 모델(Sarwer 등, 19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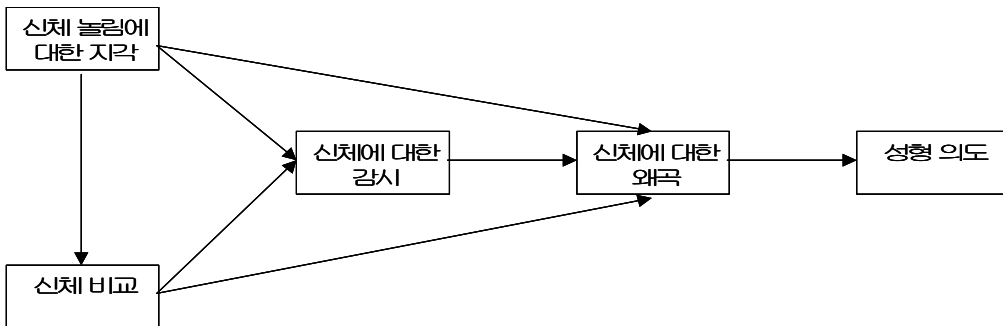


그림 2. 성형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들 간의 관계에 대한 가설적 모형

(2004)와 손은정(2007a)의 연구 결과와 Sarwer 등(1998)이 제시한 모델을 기반으로 발달적 영향(신체 놀림에 대한 지각)과 사회문화적 영향(신체비교)이 신체에 대한 지향성(신체에 대한 감시)과 신체에 대한 불만족(신체에 대한 왜곡)의 매개를 통해 성형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신체 놀림에 대한 지각

먼저, Sarwer 등(1998)은 발달적 영향을 신체에 대해 놀림을 받은 경험을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가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신체상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밝혀져왔다.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신체상을 설명하는 가장 큰 요인이 또래의 신체 놀림으로 나타났으며(조영미, 2005), 대학생 및 성인 여성들의 경우에도 어린 시절 신체 놀림에 대한 지각은 신체 불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Akan & Grilo, 1995; Grilo, Wilfley, Brownell, & Rodin, 1994). 또한 신체 놀림에 대한 지각은 성형 수술 의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인숙(2004)의 연구에서 신체에 대해 놀림을 받은 경험은 성형 의

향을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Rosenberger, Henderson, Bell, 그리고 Grilo(2007)의 연구에서 성형 수술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체 놀림에 대한 지각은 성형 수술의 중요한 유발 요인임이 밝혀졌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들을 살펴볼 때 신체 놀림에 대한 지각은 신체상 및 성형 수술 의도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 볼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신체 놀림에 대한 지각이 신체상에 대한 태도 및 성형 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신체 비교

그와 더불어, Sarwer 등(1998)이 제시한 모델에서는 사회문화적 영향 역시 성형 수술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으며, 손은정(2007a)의 연구에서는 사회문화적 영향과 관련된 변인으로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가 신체상에 대한 태도 및 성형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연구에서 사회문화적 영향을 나타내는 변인들 중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보다 신체 비교가 신체 불만족에 대해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손은정, 2008), 이는 서구 문화에서 이루어진 연구에서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가 신체 비교보다 신체 불만족에 대해 더 큰 설명력이 있었던 것과는 대조되는 결과이다(Dittmar & Howard, 2004). 이러한 차이는 우리나라의 체면문화라는 문화적 특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최상진, 유승엽, 1992). 즉,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중요한 우리나라의 문화에서는 신체에 대해 자신의 내면에서 이상적으로 바라는 기준이나 바람보다는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 사회적인 상황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인식되는 모습(신체 비교)이 훨씬 더 신체 불만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신체 비교는 원래 Festinger(1954)의 사회 비교 이론에서 비롯되었는데, 이 이론에서는 사회적 환경에서 다른 사람과 자신을 평가하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다루고 있다. 사회 비교 이론에 의하면, 사회적인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외모나 몸매와 자신을 비교하는 현상이 나타나며, 비교가 많이 이루어질수록 자신의 약점을 더욱 인식하게 되어 신체 불만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대중매체를 통해서나 사회적인 상황에서 매력적인 사람이나 모델을 보게 되면 자신과 그 사람을 비교하게 되며, 이러한 비교 경향이 클수록 매력적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의 외모에 대해 더 많이 인식하게 되며, 이로 인해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불만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선행 연구들에서 자신의 신체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신체 비교는 신체 불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Bessenoff, 2006; Dittmar & Howard, 2004; Tiggemann & McGill, 2004).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신체 비교는 신체 불만족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영향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섭식 장애나 사회 공포증과 같은 여러 심리적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Antony, Rowa, & Liss, 2005; Corning, Krumm, & Smithan, 2006). 신체 비교가 사회문화적 영향이 중요한 기제가 되는 여러 심리적 부적응에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를 통해, 신체 비교가 성형 의도와도 유의미한 관계가 있으리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성형 의도

역시 외모 지상주의라는 사회문화적 영향에 의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신체 비교가 신체 불만족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사회문화적 영향을 많이 받는 심리적 부적응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서 성형 의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을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신체 비교와 성형 의도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문화에서 신체 불만족에 대해 매우 설명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나 아직까지 성형 의도와 관련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신체 비교를 사회문화적 영향을 나타내는 변인으로 설정하고자 하였다.

그동안 신체 놀림에 대한 지각과 신체 비교 간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은 그 결과가 일관적이지 않다. 신체 놀림에 대한 지각과 신체 비교 모두 신체에 대한 불만족을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일관된 결과가 나타났지만, (Chen, Gao, & Jackson, 2007; Thompson, Covert, & Stormer, 1999; Thompson & Heinberg, 1992; van den Berg, Paxton, Keery, Wall, Guo, & Neumark-Sztainer, 2007), 신체 놀림에 대한 지각이 신체 비교의 매개를 통해 신체 불만족에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직접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들이 나타났다. 즉, Chen 등(2007)의 연구에서도 신체 놀림에 대한 지각은 신체 비교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신체 놀림에 대한 지각보다 신체 비교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회문화적 영향(대중매체, 친구, 가족 등에 의한 영향)만이 신체 비교의 매개를 통해 신체 불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Thompson 등(1999)과 van den Berg 등(2007)의 연구에서는 신체 놀림에 대한 지각

이 신체 비교의 매개를 통해 신체 불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의 차이는 연구 모형에 포함된 변인 설정이 달랐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즉 Chen 등(2007)의 연구에서는 신체 비교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회문화적 영향을 나타내는 변인을 더 추가했기 때문에, 발달적 영향을 나타내는 신체 놀림에 대한 지각의 영향력이 다만 상대적으로 감소되어 나타난 것뿐이며, 실제로 과거의 신체 놀림에 대한 지각은 현재 신체 비교의 매개를 통해 신체 불만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체 놀림에 대한 지각이 신체 비교의 매개를 통해 신체 불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고 선행 연구 결과들에 대해 재검증해보고자 하였다.

신체에 대한 감시와 신체에 대한 왜곡

발달적 영향 및 사회문화적 영향과 더불어, Sarwer 등(1998)의 신체상과 성형 수술 의도 간의 관계에 대한 통합적 모델에서는 신체상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두 가지 요인을 제시하였다. 먼저 신체에 대한 지향성(orientation)이란 신체, 외모가 그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한가에 따라 신체, 외모에 주의를 집중하는 정도가 달라지는 것을 나타낸다. 즉, 신체나 외모가 중요하다고 인식할수록 신체에 주의 집중을 많이 하게 되어 신체에 대한 지향성이 높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요인으로 제시한 신체에 대한 만족 또는 불만족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평가를 의미한다. 이 두 요인은 서로 상호작용을 하여 성형 수술 의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신체에 대한 지향성이 높으면서 신체에 대해 불만족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성형 수술 의도가 있으며, 신체에 대한 지향성이 높으면서 신체에 대해 만족하는 경우에는 의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반면, 신체에 대한 지향성이 낮은 경우에는 신체, 외모가 그 사람에게 별로 중요한 요인이 아니기에 신체, 외모에 주의 집중하는 정도가 낮다. 따라서 신체에 대해 만족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신체에 대해 불만족하는 경우에도 성형 수술 의향이 없다고 보고 있다. 즉, 신체에 대해 만족하지는 않지만 신체가 자신에게 주는 의미가 그다지 크지 않기에 굳이 성형 수술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손은정(2007a)의 연구에서는 Sarwer 등(1998)의 모델에서 제시한 신체에 대한 지향성을 신체에 대한 감시로 측정하였으며, 신체에 대한 불만족을 신체에 대한 왜곡으로 측정하였다. 특히 신체에 대한 불만족은 신체에 대한 만족부터 신체에 대한 과도한 불만족을 나타내는 신체에 대한 왜곡까지 연속선상에서 생각할 수 있다(Sarwer 등, 1998). 선행 연구에서는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체에 대한 불만족은 관련 변인들과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던데 반해 과도한 불만족을 나타내는 신체에 대한 왜곡은 성형 수술 의도가 높은 여성들의 심리적 특징이 무엇인지 더 잘 설명해 줄 있었다(문정신, 2002; 손은정, 2007a).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손은정(2007a)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신체에 대한 지향성과 신체에 대한 불만족을 신체에 대한 감시와 신체에 대한 왜곡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결국 본 연구에서는 발달적 영향을 나타내는 신체 놀림에 대한 지각, 사회적 영향을 나타내는 신체 비교, 신체에 대한 지향성을 나타내는 신체에 대한 감시, 그리고 신체에 대

한 불만족을 나타내는 신체에 대한 왜곡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성형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가정된 가설적 모형은 그림2와 같으며,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체에 대한 놀림은 신체 비교, 신체에 대한 감시, 신체에 대한 왜곡, 그리고 성형 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둘째, 신체 비교는 신체에 대한 감시, 신체에 대한 왜곡, 그리고 성형 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셋째, 신체에 대한 감시는 신체에 대한 왜곡과 성형 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넷째, 신체에 대한 왜곡은 성형 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방 법

연구 대상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서울 소재 대학교 여학생들에게 수업 시간 중 질문지를 완성하도록 하였다. 총 224명의 자료 중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한 217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참여자들의 나이는 17세에서 37세까지 평균 22.40세(표준편차 2.0)이었다. 키는 150cm에서 176cm까지, 평균 162.40cm(표준편차 4.99)이었으며, 몸무게는 40kg에서 70kg까지, 평균 52.36kg(표준편차 5.82)으로 나타났다. 총 217명 중 성형 수술을 한 사람은 57명(26.3%), 성형 수술을 하지 않은 사람은 160명(73.7%)이었다. 성형수술을 한 사람들 중 눈 수술만 한 사람이 35명(60.3%), 치아에 대한 성형을 한 사람이 7명(12.7%), 눈과 코 수술을 같이 한 사람이 6명(10.3%), 눈 수술과 치아에 대한 성형 수술을 같이 한 사람이 5명(8.6%), 코 수술

만 한 사람이 3명(5.2%), 피부에 대해 성형을 한 사람이 1명(1.7%), 기타 1명(1.7%)으로 나타났다.

도 구

신체 놀림에 대한 지각

신체 놀림에 대한 지각을 측정하기 위해서 Oliver과 Thelen(1996)의 척도 중 신체 크기와 형태에 대한 놀림 항목만을 사용한 조영미(2005)의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조영미(2005)의 연구에서는 친한 남자친구/ 친하지 않은 남자친구/ 친한 여자친구/ 친하지 않은 여자친구의 놀림으로 구분하여 또래로부터 놀림 받은 경험을 측정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또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예: 부모, 다른 어른들)의 놀림도 함께 포함시키기 위해 문항을 수정하였다. 문항의 예로는 ‘사람들은 당신의 신체의 크기나 신체의 모양을 가지고 당신을 놀렸다’를 들 수 있다. 특히 Grilo와 Masheb, Brody, Toth, Burke-Martindale, Rothschild(2005)의 연구에 따르면 비만 성형 수술을 한 환자들의 경우 신체적 학대나 성적 학대는 심리적 기능과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난데 반해, 정서적 학대는 우울이나 낮은 자아존중감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체 놀림을 받았던 빈도보다는 신체 놀림에 대해 얼마나 감정이 상했는가가 더 중요함을 나타내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형 의도에 대한 발달적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신체 놀림에 대한 정서적 지각을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총 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놀림을 받았을 때 얼마나 당황했는지에 대해 ‘전혀 당황하지 않았다(1)’에서부터 ‘매우 당황했다(5)’까지 5점 척도로 측정하였

다. 즉, 점수가 높을수록 다른 사람들로부터 놀림을 받았을 때 더 당황했음을 나타낸다. 조영미(2005)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74~.94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81이었다.

신체 비교

신체에 대한 사회적 비교를 측정하기 위해서 Tiggemann과 McGill(2004)의 구체적인 신체 특성에 대한 비교 척도(Specific Attributes Comparison Scale; SACS)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번안의 방법으로는 역번안 기법을 사용하였다. 역번안 기법은 원척도와 번역된 척도 간의 동등성을 평가하는 판단적 방법 중 하나로서 번역의 질을 평가하는 데 효과적이며(Hulin, Drasgow, & Komocar, 1982), 원검사와 가장 유사한 번안된 검사를 만드는데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Werner & Campbell, 1970). 번안의 1차 과정으로서 영어로 기록된 질문지를 본 연구자가 한글로 번역하였다. 2차 과정으로서 한글로 번역한 질문지를 영어와 한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사람(bilingual)이 영어로 역번역하였다. 3차 과정으로서 또 다른 이중언어자(bilingual)가 역번역한 질문지를 다시 원래 질문지와 비교하여 원질문지와 많은 차이를 보이는 문항을 선별하였다. 4차 과정으로서 원질문지와 많은 차이를 보이는 문항에 대한 한국어 번역을 본 연구자와 이중언어자가 원질문지에 최대한 충실하게 수정하였다.

문항의 예로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나의 허벅지의 둘레를 동료의 허벅지와 비교한다.’, 또는 ‘나는 다른 여자들의 엉덩이 크기와 내 엉덩이 크기를 비교한다.’를 들 수 있다. 이 척도는 총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항상 그렇다(5)의 5점 척도로써 점수의 범위는 5점부터 2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비교하는 경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Tiggemann과 McGill(2004)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81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86이었다.

신체에 대한 감시

신체에 대한 감시를 측정하기 위해서 McKinley와 Hyde(1996)의 대상화된 신체 의식 척도(The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Scales)의 하위 척도 중 '신체에 대한 감시(body surveillance)'를 손은정(2007b)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에서부터 '매우 그렇다'의 7까지 7점 리커트 척도이다. 점수의 범위는 8점부터 42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신체가 어떻게 보일까에 대해 관찰하고 신경을 쓰는 경향이 많은 것을 나타낸다. 문항의 예로는, '나는 종종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나에게 잘 어울리는지 걱정한다', 또는 '하루동안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에 대해 많이 생각한다.'를 들 수 있다. McKinley와 Hyde(1996)의 연구에서는 검사-재검사 신뢰도가 .79로 나타났으며, 손은정(2007b)에서는 내적 합치도가 .75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내적 합치도가 .81로 나타났다.

신체에 대한 왜곡

신체에 대한 왜곡을 측정하기 위해서 Littleton, Axon과 Cynthia(2001)가 개발하였고 문정신(2002)이 번안한 간편 신체 왜곡 질문지(The Brief Body Dysmorphic Questionnaire)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에서 '언제나

그렇다'의 5까지 5점 리커트 척도이다. 점수의 범위는 20점에서 10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에 대한 왜곡이 심한 것을 의미한다. 신체 왜곡은 신체에 대한 불만족이 너무 커서 자신의 신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변형, 왜곡하여 받아들이는 경향을 말한다. 신체 왜곡이 심한 경우에는 자신이 못 생기고 매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매우 커서,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일그러졌다고도 인식하며, 밖에 나가는 것도 꺼리게 된다. 신체 왜곡 증상에 대한 문항의 예로는 '나는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을 보는 것이 싫다', 또는 '나는 나의 외모 때문에 집을 나서는 것이 거북하다'를 들 수 있다. Littleton 등(2001)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91이었고, 문정신(2002)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9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2로 나타났다.

성형 의도

성형 수술 의도는 Harrison(2003)이 개발하였고, 최윤정(2005)이 번안한 문항들을 활용하여 손은정(2007a)이 사용한 성형 수술 의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비용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외모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 앞으로 다음의 성형수술을 할 의향이 얼마나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하였고, 이 질문에 대해 눈, 코, 안면 윤곽, 지방 흡입, 가슴 성형, 피부, 치아 각각에 대해 수술을 할 의향의 정도에 따라 5점 척도에 표시하도록 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성형 의도가 많은 것을 의미한다. 최윤정(2005)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75였고, 손은정(2007)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62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74로 나타났다.

분석 방법

(a) 예비 분석으로서 모든 변인들의 기술 통계치를 산출하였으며 변인들 간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b) 신체 놀림에 대한 지각, 신체 비교, 신체에 대한 감시, 신체에 대한 왜곡, 그리고 성형 의도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AMOS 5.0을 사용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예비 분석 결과

가설적 모형을 분석하기 위한 기초분석으로서 각 척도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등 기초통계치를 구하였으며,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변인들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분석 결과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매개모형 검증

모형 검증

신체 놀림에 대한 지각, 신체 비교, 신체에 대한 감시, 그리고 성형 의도 간의 관계에 대한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경로분석을 실시한 결과 산출된 모형의 적합도는 표2와 같다. 1에 가까울수록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는 NFI(Normed Fit Index), TLI(Tucker & 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는 모두 .99이상의 수치를 나타내었으며, 0에 가까울수록 좋은 적합도로 판단되는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역시 .028의 좋은 적합도가 나타나 본 연구에서의 가설적 모형이 타당하고 적합한 모형임을 알 수 있다(배병렬, 2007).

모형에 나타난 경로계수

먼저 신체 놀림에 대한 지각, 신체 비교, 신체에 대한 감시, 신체에 대한 왜곡, 그리고 성형 의도 간의 관계에 대한 모형의 타당성을

표 1. 기술 통계 분석 및 상관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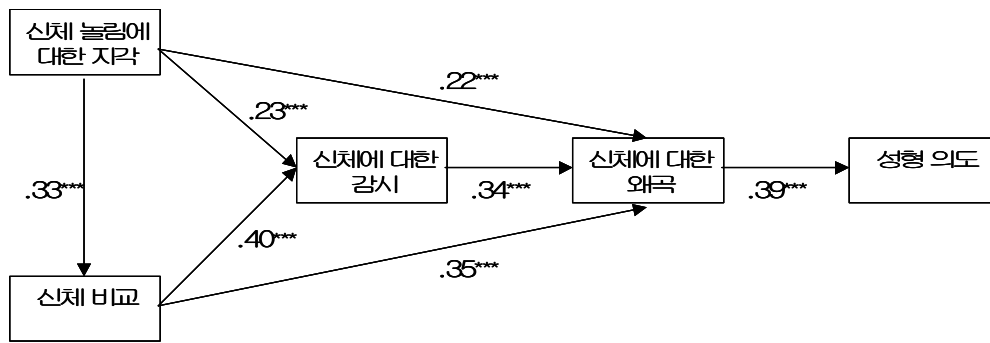
(N = 217)

| 변 인 | PTS | SC | SRVLL | BD | PSR | 평균 | 표준편차 |
|-------------------|-------|-------|-------|-------|-----|-------|-------|
| 신체 놀림에 대한 지각(PTS) | 1 | | | | | 4.71 | 2.48 |
| 신체 비교(SC) | .34** | 1 | | | | 15.59 | 4.65 |
| 신체에 대한 감시(SRVLL) | .37** | .48** | 1 | | | 4.86 | .88 |
| 신체 불만족(BD) | .46** | .59** | .59** | 1 | | 51.33 | 12.45 |
| 성형 의도(PSR) | .17* | .29** | .30** | .38** | 1 | 17.59 | 6.52 |

*p < .05, **p < .01

표 2. 성형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들 간의 관계에 대한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 지수

| | χ^2 | df | NFI | TLI | CFI | RMSEA |
|-------|----------|----|------|------|------|-------|
| 기본 모형 | 3.50 | 3 | .988 | .991 | .998 | .028 |



(*** $p < .001$)

그림 3 성형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들 간의 관계에 대한 가설적 모형의 경로 계수

표 3. 성형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들 간의 관계에 대한 가설적 모형의 경로 계수

| 경로 | 경로계수 | 표준오차 | 임계치 | 표준화계수 |
|--------------------------|------|------|------|--------|
| 신체 비교 ← 신체 놀림에 대한 지각 | .62 | .12 | 5.16 | .33*** |
| 신체에 대한 감시 ← 신체 놀림에 대한 지각 | .08 | .02 | 3.73 | .23*** |
| 신체에 대한 감시 ← 신체 비교 | .08 | .01 | 6.42 | .40*** |
| 신체에 대한 왜곡 ← 신체 놀림에 대한 지각 | 1.12 | .26 | 4.26 | .22*** |
| 신체에 대한 왜곡 ← 신체 비교 | .95 | .15 | 6.37 | .35*** |
| 신체에 대한 왜곡 ← 신체에 대한 감시 | 4.83 | .80 | 6.04 | .34*** |
| 성형 의도 ← 신체에 대한 왜곡 | .20 | .03 | 6.14 | .39*** |

*** $p < .001$

검증하기 위해 경로분석을 실시한 결과 산출된 연구 모형의 경로계수는 그림 3, 표 3에 제시하였다. 가설적 모형의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7개의 모든 경로가 $\alpha=.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간접 효과

변수들 간의 직·간접 효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신체 놀림에 대한 지각이 신체에 대한 왜곡에 미치는 영향, 신체 놀림에 대한 지각이 성형 의도에 미치는 영향, 신체 비교가 성형 의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신체에 대한 감시

가 성형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는 간접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반면 신체 놀림에 대한 지각이 신체 비교나 신체에 대한 감시에 미치는 영향, 신체 비교가 신체에 대한 감시 및 신체에 대한 왜곡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신체에 대한 감시가 신체에 대한 왜곡에 미치는 영향과 신체에 대한 왜곡이 성형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는 직접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3부터 .39까지 모든 변인이 성형 의도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체에 대한 왜곡(전체효과=.39)의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표 4. 성형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들 간의 직접·간접 효과

| 경로 | 전체 효과 | 직접 효과 | | 간접효과 |
|--------------------------|-------|-------|---|------|
| 신체 비교 ← 신체에 대한 놀림 지각 | .33 | .33 | > | .00 |
| 신체에 대한 감시 ← 신체에 대한 놀림 지각 | .36 | .23 | > | .13 |
| 신체에 대한 왜곡 ← 신체에 대한 놀림 지각 | .46 | .22 | < | .24 |
| 성형 의도 ← 신체에 대한 놀림 지각 | .18 | .00 | < | .18 |
| 신체에 대한 감시 ← 신체 비교 | .40 | .40 | > | .00 |
| 신체에 대한 왜곡 ← 신체 비교 | .49 | .35 | > | .14 |
| 성형 의도 ← 신체 비교 | .19 | .00 | < | .19 |
| 신체에 대한 왜곡 ← 신체에 대한 감시 | .34 | .34 | > | .00 |
| 성형 의도 ← 신체에 대한 감시 | .13 | .00 | < | .13 |
| 성형 의도 ← 신체에 대한 왜곡 | .39 | .39 | > | .00 |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발달적 영향을 나타내는 신체 놀림에 대한 지각, 사회문화적 영향을 나타내는 신체 비교, 그리고 신체상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신체에 대한 감시와 신체에 대한 왜곡이 성형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고, 그 결과 7개 경로 모두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체 놀림에 대한 지각, 신체 비교, 신체에 대한 감시, 그리고 신체에 대한 왜곡 모두 직접·간접적으로 성형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 신체에 대한 왜곡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위의 연구 결과를 통해 첫째, 신체 놀림에 대한 지각이라는 발달적 영향 역시 신체상(신체에 대한 감시 및 신체에 대한 왜곡)과 성형 의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Sarwer 등(1998)이 신체상과 성형 의도에 대해 제시한 모델을 경험적으로 확증

해 주고 있으며, 아동 및 청소년의 신체 놀림에 대한 지각이 신체 불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조영미, 2005), 대학생들의 아동기 시절의 신체 놀림에 대한 지각은 신체 불만족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던 결과(Akan & Grilo, 1995), 성인 여성들의 경우에도 어린 시절 신체 놀림에 대한 지각은 신체 불만족에 영향을 미쳤던 결과(Grilo 등, 1994)와 일관된다. 또한 외모 차별 경험이 성형 의향을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던 임인숙(2004)의 연구 결과, 그리고 비만 성형 수술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경우 신체 놀림에 대한 지각이 높을수록 신체 불만족이 높아진다는 Rosenberger 등(2007)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는 신체 비교라는 사회문화적 영향 역시 성형 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신체 비교가 신체 불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던 선행 연구들(Bessenoff, 2006; Dittmar & Howard, 2004;

Tiggemann & McGill, 2004)과 일치하는 결과이며, 신체 비교가 사회문화적 영향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섭식 장애나 사회 공포증과 같은 여러 심리적 부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던 결과들(Corning, Kurmm, & Smitham, 2006; Antony, Rowa, & Liss, 2005)과 맥락을 같이 한다. 특히 이전 연구들에서는 신체 비교와 성형 의도 간의 관계를 다루지는 못했는데,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신체 비교는 성형 의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신체 놀림에 대한 지각과 신체 비교가 서로 어떠한 과정을 통해 신체상 및 성형 의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알 수 있다. 즉, 과거 신체 놀림에 대해 부정적으로 지각한 정도가 높을수록 신체 비교의 정도도 높아지며, 이로 인해 신체에 대한 감시와 불만족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신체 놀림에 대한 지각이 신체 비교의 매개를 통해 신체 불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Thompson 등(1999)과 van den Berg 등(2007)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발달적 영향이 현재 사회문화적 압력에 영향을 받는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동일하게 이상적인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압력을 받지만 과거에 외모에 대해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는가가 현재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신체에 대한 왜곡이 성형 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난 것은 손은정(2007a)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서 신체에 대해 얼마나 감시하고 관찰하느냐 보다는 자신의 신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가가 성형 의도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신체상과 성형 수술 의도에 대한 Sarwer 등(1998)의 모델을 보다 통합적으로 살펴보고 있으며, 이 모델을 다시 한 번 보다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특히 사회문화적 영향에서 신체 비교라는 변인 역시 신체상 및 성형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발견했다는 점과, 사회문화적 영향뿐만 아니라 발달적 영향도 신체상 및 성형 의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발달적 영향이 현재 사회문화적 영향을 수용하는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를 통해 성형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및 변인들 간의 관계에 대해 보다 폭넓은 틀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추후 연구에서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일부 지역의 여대생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모든 대상에게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다른 지역, 다른 연령의 여성들 또는 남성들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재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성형 수술 여부와는 상관없이 앞으로 성형 수술을 할 의향이 얼마나 있는가에 대해서만 다루었다. 그러나 성형 수술을 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높은 성형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성형 수술을 한 이후 낮은 성형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성형 수술을 하지 않았으면서 낮은 성형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적인 기체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성형 수술을 실제로 실시하였으며 성형 중독 위험이 있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에 관련 변인들 간의 관계가 어떻게 달

라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과거에 신체에 대해 놀림을 받은 경험이 더 당혹스러울수록 다른 사람들에 비해 현재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을 밝혔지만, 그 외에 신체 비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예: 성격적 변인인 완벽주의의 경우, 완벽주의가 높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사회문화적 압력에 대해 더 민감하며 그 기준에 맞추어가고 더 노력할 수 있을 것이다)은 무엇인지 탐색해봄으로써 성형 의도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심리적 기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검증한 변인들 간의 인과 관계는 선행 연구들과 Sarwer(1998)가 이론적으로 제시한 모델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와는 다른 인과 관계 설정도 가능한지 추후에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신용환, 박진홍, 김태현 (연출) (2004).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서울: SBS TV.
- 문정신 (2002). 공적 자기의식 및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와 신체상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배병렬 (2007). Amos 7에 의한 구조방정식 모델링: 원리와 실제. 서울: 청람.
- 손은정 (2007a). 공적 자기의식,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 및 신체상에 대한 태도가 성형 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2, 63-81.
- 손은정 (2007b). 공적 자기의식, 신체에 대한 감시, 신체에 대한 수치심이 섭식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8, 735-750.
- 손은정 (2008). 자아존중감, 신체 비교, 마른 이상의 내면화, 신체 불만족이 이상 섭식 행동에 미치는 영향. 심사 중.
- 엄현신 (2007). 얼굴에 대한 미의식과 미용성형 수술에 대한 인식.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유창조, 정혜은 (2002). 소비자의 아름다움 추구행위에 관한 탐색적 연구: 남성의 치장과 여성의 화장, 성형 및 피트니스를 중심으로. 소비자학연구, 13, 211-232.
- 윤종희, 성수광, 진기남 (2006). 미디어 노출이 성형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산업학회지, 8, 177-182.
- 이현옥, 구양숙 (2006). 여성의 외모관리 행동의 동기연구: 성형수술, 비만체형관리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의류산업학회지, 8, 113-122.
- 임인숙 (2001). 한국 미용 성형 산업의 팽창 전략과 함의. 한국사회학회: 전기사회학대회 발표논문집(1), 247-271.
- 임인숙 (2004). 외모차별 사회의 성형 경험과 의향. 한국여성학, 20, 95-122.
- 조영미 (2005). 아동 및 청소년기의 신체상.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지경환, 이상익 (2001). 미용성형수술 환자의 심리적 특성과 미용수술이 이에 미치는 영향. 신경정신의학, 40, 559-568.
- 차영란, 김기범 (2006). 여성의 화장에 대한 태도와 성형 의도에 대한 자기존중감과 신체존중감의 역할 분석. 한국심리학회 논문집.
- 최백화 (2002). 미용성형수술에 대한 고등학생들

- 의 태도 및 행동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상진, 유승엽 (1992). 한국인의 체면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한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6, 137-157.
- 최옥선 (2004). 여성 잡지에 나타난 몸 담론 연구: 성형의료산업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한국출판학연구, 통권, 46호, 261-313.
- 최윤정 (2005). 미디어에 의한 여성들의 신체불만족 현상에 관한 연구: TV와 잡지 소비로 인한 신체불만족 현상과 다이어트, 성형수술에 대한 동의 관계 분석을 중심으로. 숙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kan, G., & Grilo, C. (1995). Sociocultural influences on eating attitudes and behaviors, body image, and psychological functioning: A comparison of African-American, Asian-American, and Caucasian college women.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18, 181-187.
- Antony, M. M., Rowa, K., & Liss, A. (2005). Social comparison processes in social phobia. *Behavior therapy*, 36, 65-75.
- Bessenoff, G. R. (2006). Can the media affect us? Social comparison, self-discrepancy, and the thin ideal.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30, 239-251.
- Chen, H., Gao, X., & Jackson, T. (2007). Predictive models for understanding body dissatisfaction among young males and females in China.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5, 1345-1356
- Corning, A. F., Krumm, A. J., & Smithan, L. A. (2006). Differential Social Comparison Processes in women with and without eating disorder symptom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3(3), 338-349.
- Dittmar, H., & Howard, S. (2004). Thin-ideal internalization and social comparison tendency as moderators of media models' impact on women's body-focused anxiety.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3, 768-791.
- Festinger, L. (1954). A theory of social comparison processes. *Human Relations*, 7, 117-140.
- Grilo, C., Masheb, R., Brody, M., Toth, C., Burke-Martindale, C. H., & Rothschild, B. S. (2005). Childhood maltreatment in extremely obese male and female bariatric surgery candidates. *Obesity Research*, 13, 123-130.
- Grilo, C., Wilfley, D., Brownell, K., & Rodin, J. (1994). Teasing, body image, and self-esteem in a clinical sample of obese women. *Addictive Behavior*, 19, 443-450.
- Harrison, K. S. (2003). Television viewers' ideal body proportions: The case of the curvaceously thin woman. *Sex Roles*, 48, 255-264.
- Hulin, C. L., Drasgow, F., & Komocar, J. (1982). Applications of item response theory to analysis of scale translation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67, 818-825.
- Littleton, H. L., Axon, D., & Cynthia, L. S. (2001). *Development of a self-report measure of body dysmorphic symptom: The brief body dysmorphic questionnaire*. Paper presented to the meeting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San Francisco, CA.

- McKinley, N. M., & Hyde, J. S. (1996). The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0, 181-215.
- Oliver, K. K., & Thelen, M. H. (1996). Children's perceptions of peer influence on eating concerns. *Behavior Therapy*, 27, 25-36.
- Rosenberger, P. H., Henderson, K. E., Bell, R. L. & Grilo, C. M. (2007). Association of weight-based teasing history and current eating disorder features and psychological function in bariatric surgery patients. *Obesity surgery*, 17, 470-477.
- Sarwer, D. B., Wadden, T. A., Pertschuk, M. J. & Whitaker, L. A. (1998). The psychology of cosmetic surgery: A review and reconceptualization. *Clinical Psychology Review*, 18, 1-22.
- Tiggemann, M., & McGill, B. (2004). The role of social comparison in the effect of magazine advertisements on women's mood and body dissatisfaction.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3, 23-44.
- Thompson, J. K., Covert, M. D., & Stormer, S. M. (1999). Body image, social comparison, and eating disturbance: A Covariance Structure Modeling investig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 26, 43-51.
- Thompson, J. K., & Heinberg, L. J. (1992). Preliminary test of two hypotheses of body image disturbance.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 14, 59-63.
- van den Berg, P., Paxton, S. J., Keery, H., Wall, M., Guo, J., & Neumark-Sztainer, D. (2007). Body dissatisfaction and body comparison with media images in males and females. *Body Image*, 4, 257-268.
- Werner, O., & Campbell, D. (1970). Translating, working through interpreters, and the problem of decentering. In R. Naroll and R. Cohen (Eds.), *A handbook of methods in cultural anthropology*. New York: American Museum of National History.
- 1 차원고집수 : 2008. 4. 28.
심사통과집수 : 2008. 6. 3.
최종원고집수 : 2008. 6. 6.

**The influence of the Perception of Teasing,
Physical comparison, Body Surveillance, and Body distortion
on the Intention of Plastic Surgery**

Eun Jung Son

Baekseok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the perception of teasing, physical comparison, body surveillance, and body distortion on the intention of plastic surgery. Participants were recruited from the class in the University in Seoul, and 217 women responded the questionnaires. As a result of path analysis, (a) all 7 paths were significant (b) all four variables affect the intention of plastic surgery directly or indirectly. and (c) body distortion was the most direct and critical predictor on the intention of plastic surgery. Theses results showed the integrative combined model of variables related to the intention of plastic surgery.

Key words : *plastic surgery, teasing, physical comparison, social comparison, body surveillance, body distortion*